

RESEARCH THAT MATTERS

트랜스젠더 권리에 대한 여론 한국

2019년 11월

Horim Yi (이호림)
Winston Luhur (윈스턴 루허)
Taylor N.T. Brown (테일러 브라운)

서론

이 보고서는 한국 사회에서 트랜스젠더와 그들의 권리에 대한 일반 대중의 견해를 살펴본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트랜스젠더에 대한 세계인의 태도' 설문조사에서 얻은 자료를 분석하여 트랜스젠더와 그들의 권리 및 사회적 지위에 대한 견해를 담은 정보를 제공한다. 보고서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트랜스젠더와 그들의 권리 및 사회적 지위에 대한 태도를 기술한다.
- 설문조사 응답자의 개인별 특성과 여론 사이의 연관성을 알아본다.
- 현재 나와 있는 문헌에 나타난 한국 트랜스젠더에 대한 여론의 격차를 좁힌다.

한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전의 설문조사에서는 레즈비언과 게이에 대한 여론이 외국인 노동자와 북한 이탈 주민 등의 다른 소수 집단에 대한 여론에 비해 훨씬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¹ 트랜스젠더에 대한 일반 대중의 태도는 레즈비언과 게이에 대한 태도와 비슷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국에서 트랜스젠더와 그들의 권리에 관한 여론에 대해 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었다. 다른 나라에서의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성별과 연령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와의 접촉과 같은 요인에 따라 트랜스젠더 권리를 지지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를 보였다.² 그러나 참고할 만한 문헌이 부족하여, 트랜스젠더와 그들의 권리에 대한 태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 특히 일반 대중을 대표하는 표본을 이용한 조사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21세기 초에 트랜스젠더 집단에 관한 공적 담론이 급격히 증가했다. 그 이유는 2001년에 국내 광고 방송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임을 커밍아웃한 '하리수'라는 유명인을 한국 언론이 보도한 것이 어느 정도는 이유가 되었다. 하리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한국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었다.³ 그 이후로, 트랜스젠더 권리 운동이 점점 더 조직화되면서 일반 대중이 '트랜스젠더'라는 용어와 트랜스젠더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슈에 더 익숙해지게 되었다.⁴ 그러나 언론에서 묘사되는 트랜스젠더의 모습은 주로 트랜스젠더 여성의 전형적인 모습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트랜스젠더 여성들이나 트랜스젠더들의 다양한 경험을 더 폭넓게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의 차별금지 조항에는 성적 지향이 보호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성별 정체성이 법적인 보호대상으로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를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트랜스젠더 차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5, 6, 7}

트랜스젠더들은 법원 결정을 받아 신분 증명서 상의 법적인 성별을 변경할 수 있는데, 해당 개인이 성확정 수술, 불임, 19세 이상, 미혼 및 기타 요건을 포함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급된다.⁸ 성전환 관련 치료들을 받는 데 법적 제한은 없지만 이 치료는 한국의 국가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트랜스젠더들이 성전환 관련 치료를 받는 데 있어 가능한 선택지가 별로 없다.⁹

가족구성권 면에서 트랜스젠더들은 반대의 성별인 사람과 결혼을 할 수는 있지만, 성별 변경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나서야 가능하며, 헌법에서는 결혼을 남자와 여자간의 결혼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트랜스젠더(또는 시스젠더)인 사람들이 동성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지에 관해 적극적인 입법도 없다.¹⁰ 한국에서는 동성 결혼에 대한 명확한 법적 입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아직 동성 결혼을 인정하거나 공표한 바가 없다.¹¹ 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들이 임신이나 출산을 할 수 있는지, 입양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도 없다.¹²

한국에서는 군 복무가 모든 "신체 건강한 남자"에게는 의무이지만, 트랜스젠더인 남자와 여자에게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¹³ 트랜스젠더 남자들은 그들의 성 전환을 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남성성이 시스젠더(생물학적 성과 성별 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인 남자들의 남성성보다 낮다고 간주되어

일반적으로 병역을 면제받는다.¹⁴ 성 전환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트랜스젠더 여자는 병역이 면제된다. 그러나 징병 연령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트랜스젠더들은 법적 성별 정정 절차를¹⁵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법적 인정을 받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이다.¹⁶ 따라서, 대부분의 트랜스젠더 여자들은 출생시 지정된 자신의 성에 따라, 남자라고 간주되는 경우, 군에 입대해야 하거나, “[고도의] 성 정체성 장애” 진단을 받아 법적으로 병역 면제를 받아야 한다.¹⁷

방법론

이 보고서는 '2017년 트랜스젠더에 대한 세계인의 태도' 조사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응답자의 친숙도와,¹⁸ Ipsos에 의해 구성된 온라인 패널로부터 트랜스젠더와 그들의 권리 및 그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태도에 대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한국인 표본집단은 16세에서 64세까지 한국어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 II 참조). 한국인 응답자들로부터 수집한 자료에는 16세에서 64세까지의 한국인 집단을 반영하도록 가중치가 주어졌다.¹⁹

분석 표본집단에 포함된 응답자는 500명이었다. 아래에서 가중 백분율과 95% 신뢰구간으로 응답자의 인구통계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 트랜스젠더에 대한 친숙도, 트랜스젠더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공공정책을 설명한다. 성별, 연령, 교육, 소득 및 트랜스젠더에 대한 친숙도 등 개인 수준의 특성이 트랜스젠더와 그들의 권리 및 사회적 지위에 대한 태도와 같은 의존 변수와 연관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가중된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서 트랜스젠더로 확인된 개인들을(n=8) 제외했는데, 그 수가 너무 적어서 트랜스젠더 응답자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추정치를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이었다. 첨부 I에 회귀분석에 관한 추가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이 분석에서는 Stata 14와 15를 사용하였다. Ipsos는 설문조사 가중치를 제공하여 결과가 16세에서 64세까지의 한국인을 대표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게 해주었다. UCLA 노스 캠퍼스 일반연구윤리심의위원회(UCLA North General Institutional Review Board, NGIRB)는 이 연구가 개인정보를 제거한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간 대상 연구로서의 심의가 면제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첨부 II, 단일 국가 보고서에 대한 Ipsos 방법론 부록에 방법론적 세부 내용이 담겨 있다.

트랜스젠더와 그들의 권리에 대한 여론

인구통계 및 사회경제적 특성

이 설문조사의 응답자 구성은 남성이 50.6%, 여성이 49.4%로 비율이 비슷했다(표1). 표본집단의 응답자 중 38.2%는 16세에서 34세, 40.1%는 35세에서 49세, 21.7%는 50세에서 64세의 연령 분포를 보였다(평균 연령 =40.8세).

응답자의 대다수(76.1%)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었다. 응답자의 약 절반이 월 가계 소득이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이라고 응답하였다(50.2%). 응답자의 37.1%는 월 가계 소득이 200 - 399만원으로 중위 소득, 12.7%는 가계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응답했다. 응답자의 약 절반이 기혼자였다(54.5%). 마지막으로, 한국 응답자의 대다수가 현재 취업자였다(80.4%).

표 1 조사 응답자의 인구통계 및 사회경제적 특성(N=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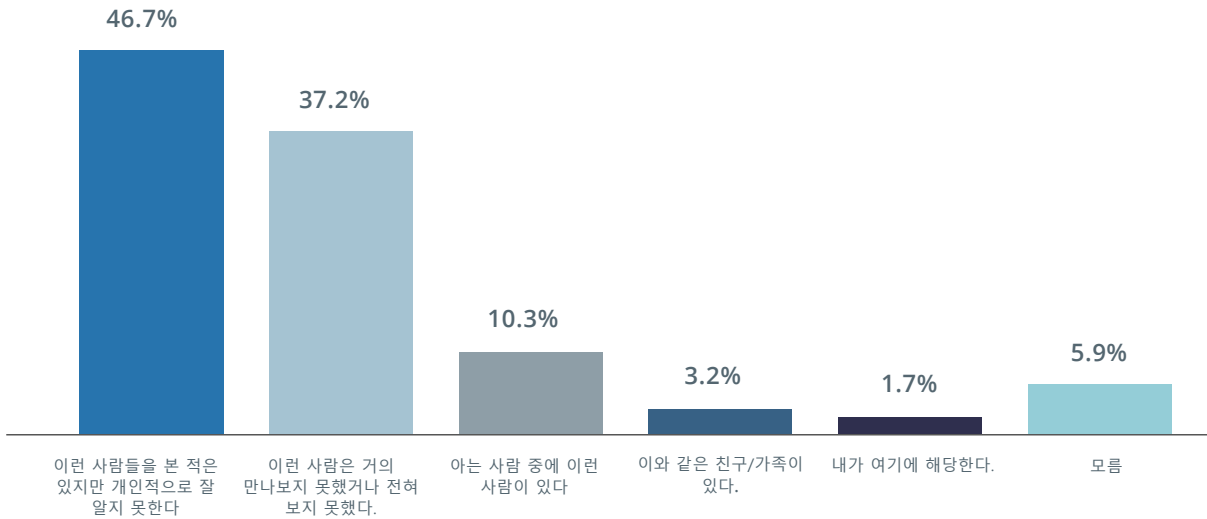
		비가중 빈도	가중치 적용 백분율	95% 신뢰구간
성별				
	남성	253	50.6%	(45.9%, 55.3%)
	여성	247	49.4%	(44.7%, 54.1%)
연령(세)				
	평균	500	38.9	(37.6, 40.2)
	16-34세	159	38.2%	(33.5%, 43.3%)
	35-49세	223	40.1%	(35.7%, 44.6%)
	50-64세	118	21.7%	(18.3%, 25.5%)
학력				
	저학력 (중졸 이하)	5	1.2%	(0.5%, 3.2%)
	중학력 (고졸)	93	22.6%	(18.5%, 27.4%)
	고학력 (대졸 이상)	402	76.1%	(71.3%, 80.3%)
월 가계 소득				
	저소득 (200만원 미만)	58	12.7%	(9.7%, 16.5%)
	중소득 (200-399만원)	179	37.1%	(32.6%, 41.8%)
	고소득 (400만원 이상)	263	50.2%	(45.5%, 54.9%)
결혼 상태				
	기혼	298	54.5%	(49.7%, 59.3%)
	기타 [†]	202	45.5%	(40.7%, 50.3%)
고용 상태^{††}				
	취업자	418	80.4%	(75.9%, 84.3%)
	미취업자	82	19.6%	(15.7%, 24.1%)

[†]기타에는 동거, 미혼, 이혼, 및 사별 포함; ^{††}취업자에는 풀타임 근로, 파트타임 근로 및 자영업자 포함, 미취업자에는 학생, 실업자 및 은퇴자 포함

트랜스젠더에 대한 친숙도

참가자의 거의 절반이 이전에 트랜스젠더인 사람들을 본 적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고(46.7%), 약 3분의 1은(37.2%) 트랜스젠더인 사람들을 거의 또는 전혀 접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그림 1). 참가자 10명 중 약 1명(10.3%)이 트랜스젠더인 지인이 있다고 응답했고, 3.2%는 트랜스젠더인 가족 또는 가까운 친구가 있다고 응답했다. 참가자 중 여기에 제시된 정의에 따른 트랜스젠더라고 응답한 사람은 극소수였다(1.7%). 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모름"을 선택한 참가자도 있었다(5.9%).²⁰

그림 1. 패널 참가자(N=500)의 트랜스젠더들에 대한 친숙도



위의 비율이 나타내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처럼 옷을 입고 생활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실제로 자신을 여성으로 생각하여 여성처럼 옷을 입고 생활합니다. 또는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을 남성으로 생각하여 남성처럼 옷을 입고 생활합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얼마나 친숙하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답변을 모두 선택하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한 참가자의 응답이다. 참가자들은 복수의 응답을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비율 합계가 100%가 아니다.

트랜스젠더에 대해 응답자마다 친숙도의 정도가 서로 달랐다. 그림 1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상호 배타적으로 분류해보면, 대다수의(80.2%) 참가자들이 트랜스젠더인 사람들을 본 적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또는 트랜스젠더인 사람들을 거의 또는 전혀 접한 적이 없다는 응답만 했다(표시되지 않음). 참가자 10명 중 약 1명(12.2%)이 트랜스젠더인 지인, 친구 또는 가족이 있다고 응답했다(표시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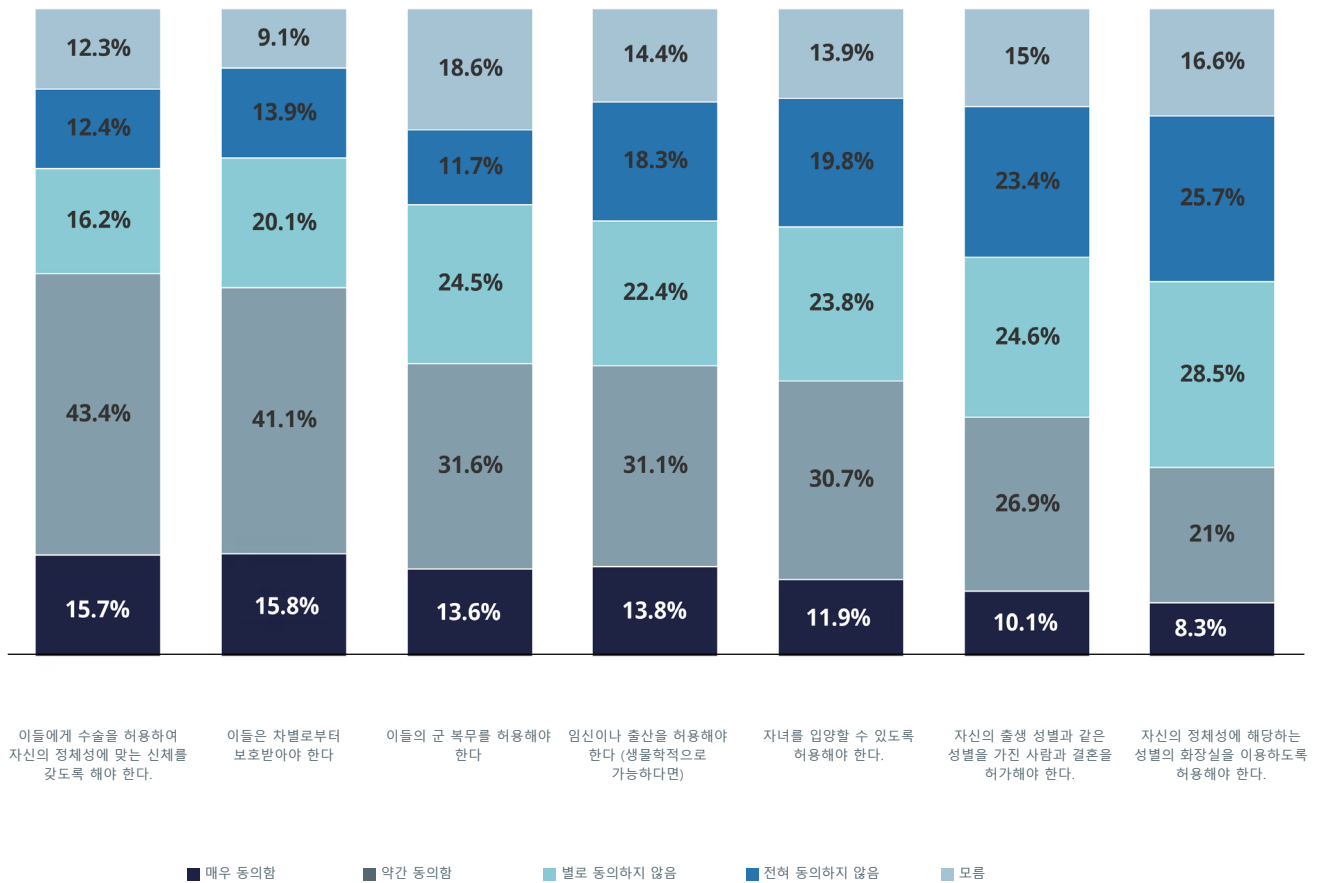
트랜스젠더의 권리에 대한 태도

태도를 직접적으로 평가했을 때, 반 이상의 응답자들이(59.1%) 트랜스젠더들이 그들의 신체와 성별 정체성을 일치시키기 위한 수술을 받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고, 트랜스젠더들이 차별받지 않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데 동의한 응답자도 절반이 넘었다(56.9%)(그림 2). 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들이 군복무를 하도록 허용되고(45.2% vs. 36.3%) 임신이나 출산을 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44.9% vs.

40.7%) 동의하는 응답자가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들보다 더 많았다. 트랜스젠더들이 자식을 입양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응답자와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의 비율은 비슷했다(각각 42.5% vs. 43.6%). 트랜스젠더들이 출생 시 성별과 동성인 사람과 결혼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의 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47.9% vs. 37.1%). 트랜스젠더들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데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각각, 54.2% vs. 29.3%). 7개 항목 전체에서 9.1%에서 18.6% 사이의 응답자가 “모른다”는 응답을 선택했다.

그림 2. 패널 참가자(N=500) 사이에 트랜스젠더의 권리에 대한 태도

질문: 태어난 성별과 다른 성별처럼 옷을 입고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다음의 각 진술에 대하여 동의 또는 동의하지 않음을 표시해주십시오



우리는 가중 회귀분석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참가자의 친숙도와²¹ 참가자의 인구통계 및 사회경제적 지위가 이러한 권리에 관한 진술에 동의하는지의 여부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탐구하였다(부록 I 표 A). 특히, 남성 참가자들이 여성 참가자들보다 동의하지 않음보다 동의한다는 쪽이 유의하게 더 낮았는데, 그 비율은, 트랜스젠더들이 출생 시 성별과 동성인 사람과 결혼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상대위험도 [RRR]=0.50; CI [0.32, 0.78]), 임신이나 출산을 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RRR=0.64; CI [0.41, 0.99]), 차별받지 않고 보호받아야 한다(RRR=0.55; CI [0.35, 0.84]), 군복무를 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RRR=0.62; CI [0.40, 0.98])로 나타났다.²²

나이가 16-34세로 가장 어린 응답자들은 50-64세 응답자들에 비해, 트랜스젠더들이 출생 시 성별과 동성인 사람과 결혼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음에 비해 동의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35-49세의 응답자들은 50-64세 응답자들에 비해 트랜스젠더들이 군복무를 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데 더 동의하는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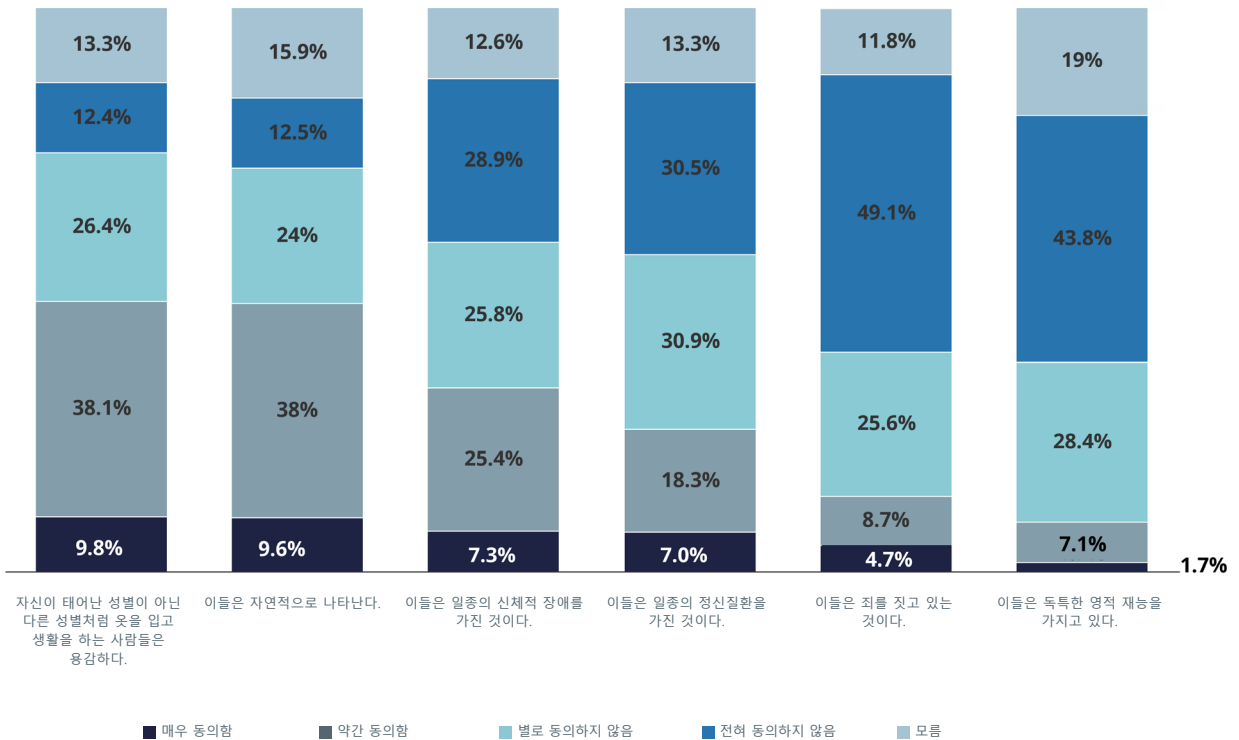
응답자들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친숙도와 학력 수준과 가계 소득은 일곱 가지의 권리에 기초를 둔 진술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트랜스젠더 권리에 대한 태도²³

일반적으로, 많은 수의 응답자들이 트랜스젠더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었다. 트랜스젠더인 사람들이 타고난 것이며(각각, 47.6% vs. 36.5%) 용감한 사람들(47.9% vs. 38.8%)이라는 진술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보다 비율이 더 높았다. 오직 소수의 응답자들만 트랜스젠더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13.4%), 일종의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다(25.3%) 또는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데(32.7%) 동의했다. 6개 항목 전체에서 11.8%에서 19.0% 사이의 응답자가 "모른다"는 응답을 선택했다.

그림 3. 패널 참가자(N=500)의 트랜스젠더들에 대한 태도

질문: 태어난 성별과 다른 성별처럼 옷을 입고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다음의 각 진술에 대하여 동의 또는 동의하지 않음을 표시해주십시오.



부록 I 표 B에서 보듯이, 트랜스젠더인 사람을 알고 있는 응답자들은 트랜스젠더가 일종의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RRR=2.14; CI [1.09, 4.21]) 죄를 짓고 있다(RRR=2.30; CI [1.28, 7.03])는 것에 동의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남성 응답자들은 여성 응답자들보다 트랜스젠더가 일종의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연령이 가장 낮은 그룹(16-34세)의 응답자들은 50-64세 응답자들보다 트랜스젠더가 일종의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다(RRR=0.34; CI [0.18, 0.67])와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다(RRR=0.21; CI [0.11, 0.40])는 진술에 동의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35-49세의 응답자들은 나이가 더 많은 50-64세 응답자들에 비해 트랜스젠더들이 일종의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진술에 동의하는 정도가 더 낮았다(RRR=0.60; CI [0.36, 0.99]). 뿐만 아니라, 16-34세 응답자(RRR=4.37; CI [2.37, 8.04])와 35-49세 응답자(RRR=1.97; CI [1.17, 3.30]) 모두 나이 많은 그룹보다 트랜스젠더가 용감하다는 진술에 동의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고학력 응답자들은 저수준과 중수준의 학력자들보다 트랜스젠더가 일종의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진술에 동의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RRR=2.08; CI [1.08, 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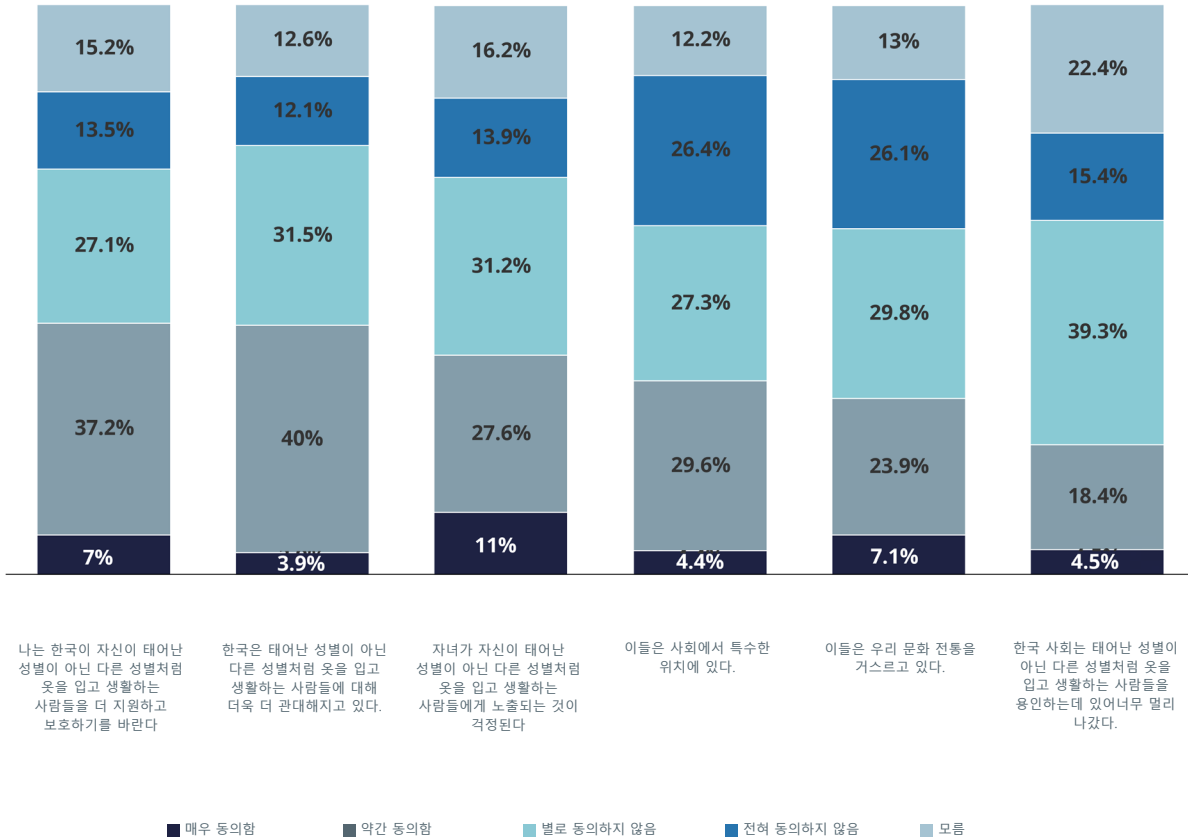
가계 소득 수준이 낮은 응답자들에 비해, 가계 소득이 높은 응답자들은 트랜스젠더가 죄를 짓고 있다는 진술에 동의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더 낮았다(RRR=0.37; CI [0.15, 0.92]).

사회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태도

한국 사회는 트랜스젠더에 대해 더 관대해지고 있고(43.9% vs. 43.6%) 한국 사회가 트랜스젠더를 지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한다(44.2% vs. 40.6%) 동의하는 응답자가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보다 비율이 더 높았다(그림 4). 다음의 진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들이 더 많았다 - 자녀들이 트랜스젠더와 접촉하는 것이 걱정이다(45.2% vs. 38.6%), 트랜스젠더가 문화의 전통을 훼손하고 있다(55.9% vs. 31.0%), 한국 사회가 사람들이 출생 시 타고난 성과 다른 성으로 옷차림을 하고 생활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있어서 정도가 지나치다(54.6% vs. 22.9%).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53.8%)이 트랜스젠더가 사회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에 동의하지 않았다. 6개 항목 전체에서 12.2%에서 22.4% 사이의 응답자가 “모른다”는 응답을 선택했다.

그림 4. 패널 참가자(N=500)의 사회에서 트랜스젠더들에 대한 태도

질문: 태어난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처럼 옷을 입고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다음의 각 진술에 대하여 동의 또는 동의하지 않음을 표시해주십시오



부록 I 표 C에서 보듯이 회귀분석에서 나온 결과는 트랜스젠더인 사람을 알고 있다고 말한 응답자들이 자녀들이 트랜스젠더인 사람들을 접할까봐 걱정이라는 진술에 동의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RR=0.36; CI [0.17, 0.76]).

남성 응답자들은 여성 응답자들에 비해 트랜스젠더가 문화의 전통을 훼손하고 있다는(RRR=1.91; CI [1.20, 3.05]) 진술에 동의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16-34세의 나이가 가장 적은 응답자들은 50-64세 응답자들에 비해 트랜스젠더들이 문화 전통을 훼손하고 있다는 진술에 동의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더 낮았다(RRR=0.45; CI [0.24, 0.84]).

고학력 응답자들은 저학력과 중간 수준의 학력자들에 비해 한국 사회가 트랜스젠더를 지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RRR=0.53; CI [0.29, 0.96]) 진술에 동의하는 정도가 낮았다.

가계 소득이 높은 응답자들은 가계 소득이 낮다고 말한 응답자들에 비해 자녀들이 트랜스젠더와 접할까봐 걱정이라는 진술에(RRR=2.30; CI [1.06, 4.99]) 더 많이 동의했다.

토의

우리가 아는 바로는, 이 연구가 한국 성인들을 상대로 트랜스젠더와 그들의 권리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최초의 연구이다. 전체적으로, 이 연구결과는 대다수가 성 확정 수술 접근과 임신이나 출산할 권리,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의 보호, 군복무할 권리를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녀 입양, 출생 시 성과 동성인 사람과의 결혼, 성별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사용 권리에 대해서는 대중의 지지가 더 낮았다. 현저히 소수의(대략 10-20%) 성인들이 Ipsos 여론조사의 질문에 “모른다”고 응답하여 아직 트랜스젠더나 그들의 권리에 대한 의견을 아직 갖고 있지 않았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태도는 다양했다. 대다수가 트랜스젠더들이 일종의 신체 장애나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진술에 동의하고 트랜스젠더들이 문화 전통을 훼손하고 있다는 진술에 동의하지 않았고 자녀들이 트랜스젠더와 접하게 될까봐 걱정이라는 진술에 동의하지 않은 반면, 현저히 소수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 한국의 현행 질병분류표(KDC7)에서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관련된 진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트랜스젠더들이 정신 질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목할만하다.²⁴ 여성들과 16-34세의 응답자들은 여러 가지 이슈에서 트랜스젠더인 사람들과 그들의 권리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것은 트랜스젠더의 권리에 대한 여론을 다루는 이전의 문헌과 일치한다.²⁵

트랜스젠더 접촉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결과는 복합적이다. 트랜스젠더 지인이 있다고 말한 사람은 자녀가 트랜스젠더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에 대해 걱정을 덜하는 편이었고, 이것은 이전의 연구와 일치한다.^{26, 27} 트랜스젠더 지인이 있다고 말한 사람들은 트랜스젠더 지인이 없다고 말한 사람에 비해 트랜스젠더를 일종의 정신 질환이 있거나 죄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경향도 높았다. 이 연구 결과는 이전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트랜스젠더 지인이 있는 사람들은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KDC7에 따르면 성 정체성 장애로 분류된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²⁸ 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트랜스젠더를 보여주는 언론 방식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신문, 텔레비전, 영화, 기타 형식의 매체들이 트랜스젠더에 대해 비극적 인물이라는 고정관념에 기초해 성적 불쾌감 경험과 의학적 전환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춘 서사를 계속 만들고 있다.²⁹ 트랜스젠더에 더 친숙한 사람들은 이런 묘사에 대해 더 잘 알고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와는 반대로, 가계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자녀가 트랜스젠더에 접하는 것을 더 걱정하지만 트랜스젠더를 죄인으로 보는 경향은 덜 했다. 미국과 한국에서의 이전 연구는 독실한 신앙심 및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트랜스젠더 권리, 동성 결혼 및 동성애에 대한 태도 사이에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30, 31, 32} 그러나, 트랜스젠더에 대한 세계인의 태도에 관한 Ipsos 설문조사에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신앙심의 척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연구에서 이러한 요소들과, 이런 요소들이 트랜스젠더 응답자에 대한 친숙도나 가계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는 조사할 수 없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사회에서 트랜스젠더와 그들의 권리 및 지위에 대한 여론을 묻는 향후의 연구 조사를 위한 기준 설정에 도움이 된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신앙심 척도가 포함된 향후의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의 연구는 이 연구를 토대로 하여 확률 표본추출을 적용하고 이해력과 문화적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인식적으로 검증이 된 척도를 사용해야 한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세계인의 태도 설문조사’에 참가한 응답자의 최대 5분의 1이 트랜스젠더와 그들의 권리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진술에 응하여 “모르겠다”는 응답을 선택했다. 이것은 많은 성인들이 이 주제에 관한 견해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 대중이 매체의 묘사와 군복무/면제 등의 트랜스젠더 권리에 대한 공개토론을 통해 다양한 트랜스젠더에게 친숙해질수록, 대중의 태도는 변할 수도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관찰해야 한다.

저자

이호림 (Horim Yi)

호림은 윌리엄스 연구소의 방문 대학원생 연구자였다.

윈스턴 루허 (Winston Luhur)

윈스턴은 윌리엄스 연구소의 연구 보조원으로 국제 연구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시니어 연구자들과 일하고 있다.

테일러 N. T. 브라운 (Taylor N.T. 브라운)

테일러는 윌리엄스 연구소의 프로젝트 매니저였다.

감사의 글

이 프로젝트와 지도와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 윌리엄스 연구소의 객원 연구원이자 아메리칸 대학교의 부교수인 Andrew R. Flores와 윌리엄스 연구소의 Blachford-Cooper 특별 연구원이자 연구 책임자인 Kerith J. Conron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University of North Carolina-Chapel Hill의 연구조교수인 Shoshana K. Goldberg와 윌리엄스 연구소의 공공정책 윌리엄스 특별 선임 연구원인 Ilan H. Meyer 에게도 이 보고서의 초안을 광범위하게 검토해주시고 통찰력 있는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Ipsos 설문조사와 2016년도 자료를 분석하는 윌리엄스 연구소의 초기 출판물의 개념적 해석에 도움을 주신 윌리엄스 연구소의 전직 국제 프로그램 책임자였던 Andrew Park에게도 감사드린다. 사전 보고서 신판에 대해 사려깊은 의견을 주시고 본 보고서의 번역본을 검토해주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 연구회 (Korean Society of Law and Policy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의 박한희 (Hanhee Park) 씨에게도 감사드린다.

윌리엄스 연구소 소개

윌리엄스 연구소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법정책에 대한 엄밀하고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단체다. UCLA 로스쿨의 씹크 탱크로, 윌리엄스 연구소는 현실 세계에 대한 양질의 연구를 생산하고, 이러한 연구를 판사와 입법자, 정책 입안자, 미디어와 대중에게 전파한다. 연구결과들은 윌리엄스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접근할 수 있다.

FOR MORE INFORMATION

The Williams Institute, UCLA School of Law
1060 Veteran Avenue, Suite 134
Box 957092, Los Angeles, CA 90095-7092
williamsinstitute.law.ucla.edu



부록 I

트랜스젠더에 대한 태도 예측 변수, 다항 로지스틱 회귀 모형

다항 로지스틱 회귀에 나오는 계수를 논의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상대위험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을 조정된 상대 승산비라고 부르기도 했다.^{33, 34} 이 보고서에서는 “위험”, “확률” 또는 “승산”의 측면에서 결과를 기술하는 것을 피하고 대신에 “가능성” 또는 “가능성이 더 큰/더 작은”이라는 용어를 선택했다.³⁵ 다음 표는 “동의하지 않는다”(‘전혀 동의하지 않음’과 ‘별로 동의하지 않음’을 합하여) 응답의 지시대상 범주와 비교하여, “동의한다”(‘매우 동의함’과 ‘약간 동의함’을 합하여) 또는 “모른다”라는 응답을 각각의 태도 항목에 맞게 조절한 RRR을 반영한다. 성별, 연령, 학력, 가계 소득, 트랜스젠더에 대한 친숙도가 태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탐구하기 위해 각 항목에 대해 별도의 다항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준비하여 모형의 다른 모든 변수들에 맞게 조정하였다. 상대 위험도(RRR)가 1.0 이상인 것은 특정 응답이(“동의하지 않음”에 비해) 문제의 변수(가령, 성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RRR이 1.0 미만인 것은 특정 응답과의 관련성이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굵은 글씨체는 양측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표 A. 트랜스젠더의 권리에 대한 태도: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트랜스젠더(n=492)에 대한 친숙도에 맞춰 조정된 다중 로지스틱 회귀 모형의 가중 상대 위험도와 95% 신뢰구간

	이들에게 수술을 허용하여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신체를 갖도록 해야 한다			자신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성별의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자신의 출생 성별과 같은 성별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허가해야 한다			임신이나 출산을 허용해야 한다 (생물학적으로 가능하다면)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모름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모름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모름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모름
	RRR (95% CI)	RRR (95% CI)	RRR (95% CI)	RRR (95% CI)	RRR (95% CI)	RRR (95% CI)	RRR (95% CI)	RRR (95% CI)	RRR (95% CI)	RRR (95% CI)	RRR (95% CI)	RRR (95% CI)
F-통계량(df) (p-값)	F(16, 19731)=3.23 (p<0.00)			F(16, 19731)=2.45 (p<0.00)			F(16, 19731)=3.30 (p<0.00)			F(18, 19731)=2.77 (p<0.00)		
절편	1	5.77 (2.17, 15.33)	4.30 (1.31, 14.12)	1	0.77 (0.29, 2.05)	0.43 (0.16, 1.15)	1	0.51 (0.20, 1.33)	0.76 (0.27, 2.11)	1	1.29 (0.50, 3.36)	2.23 (0.78, 6.39)
성별(기준: 여성)												
남성	1	0.67 (0.43, 1.03)	0.70 (0.33, 1.46)	1	0.73 (0.46, 1.15)	0.54 (0.31, 0.96)	1	0.50 (0.32, 0.78)	0.42 (0.23, 0.77)	1	0.64 (0.41, 0.99)	0.53 (0.28, 1.01)
연령(기준: 50-64세)												
16-34세	1	0.92 (0.49, 1.75)	0.57 (0.22, 1.48)	1	0.73 (0.39, 1.36)	1.05 (0.49, 2.24)	1	2.22 (1.21, 4.08)	1.51 (0.67, 3.40)	1	1.29 (0.71, 2.33)	0.67 (0.29, 1.53)
35-49세	1	0.94 (0.55, 1.62)	0.78 (0.35, 1.73)	1	0.89 (0.53, 1.49)	1.24 (0.63, 2.45)	1	1.26 (0.74, 2.15)	1.63 (0.80, 3.28)	1	0.87 (0.52, 1.44)	0.82 (0.40, 1.67)
학력(기준: 저학력과 중간 수준의 학력)												
고학력	1	0.76 (0.39, 1.46)	0.62 (0.25, 1.50)	1	1.49 (0.83, 2.67)	1.13 (0.55, 2.33)	1	0.74 (0.41, 1.34)	0.77 (0.37, 1.60)	1	1.01 (0.55, 1.82)	0.50 (0.24, 1.04)
소득(기준: 저소득)												
중소득	1	0.76 (0.32, 1.78)	0.22 (0.08, 0.62)	1	0.46 (0.20, 1.06)	0.69 (0.30, 1.59)	1	1.99 (0.83, 4.77)	0.71 (0.30, 1.65)	1	1.00 (0.43, 2.29)	0.33 (0.13, 0.83)
고소득	1	0.57 (0.23, 1.36)	0.15 (0.05, 0.4)	1	0.78 (0.35, 1.73)	0.54 (0.24, 1.24)	1	1.96 (0.82, 4.69)	0.36 (0.16, 0.82)	1	1.14 (0.51, 2.57)	0.35 (0.14, 0.84)
트랜스젠더 지인이 있다(기준: 트랜스젠더 지인이 없다)												
트랜스젠더 지인이 있다	1	0.75 (0.37, 1.49)	0.63 (0.16, 2.46)	1	1.48 (0.73, 3.01)	1.38 (0.52, 3.68)	1	1.05 (0.53, 2.05)	0.34 (0.07, 1.76)	1	0.94 (0.47, 1.90)	0.91 (0.28, 2.96)
모름	1	0.10 (0.03, 0.29)	1.47 (0.53, 4.08)	1	0.80 (0.27, 2.40)	4.69 (1.87, 11.78)	1	0.44 (0.15, 1.33)	2.07 (0.76, 5.62)	1	0.22 (0.07, 0.69)	2.33 (0.89, 6.09)

참고: 자유도(df); 신뢰구간(CI); 굵은 글씨의 셀은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표 A(계속). 트랜스젠더의 권리에 대한 태도: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트랜스젠더(n=492)에 대한 친숙도에 맞춰 조정된 다중 로지스틱 회귀 모형의 가중 상대 위험도와 95% 신뢰구간

	자녀를 입양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들은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이들의 군 복무를 허용해야 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모름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모름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모름
	RRR (95% CI)	RRR (95% CI)	RRR (95% CI)	RRR (95% CI)	RRR (95% CI)	RRR (95% CI)	RRR (95% CI)	RRR (95% CI)	RRR (95% CI)
F-통계량(df) (p-값)	F(12, 19735)=1.83 (p<0.05)			F(18, 19731)=2.89 (p<0.00)			F(18, 19731)=2.44 (p<0.01)		
절편	1	1.09 (0.39, 3.10)	0.51 (0.14, 1.80)	1	2.28 (0.95, 5.44)	0.70 (0.21, 2.30)	1	3.05 (1.17, 7.94)	3.11 (1.11, 8.75)
성별(기준: 여성)									
남성	1	0.85 (0.56, 1.30)	0.72 (0.37, 1.39)	1	0.55 (0.35, 0.84)	1.04 (0.48, 2.27)	1	0.62 (0.40, 0.98)	0.44 (0.24, 0.78)
연령(기준: 50-64세)									
16-34세	1	1.00 (0.98, 1.02)	1.01 (0.98, 1.04)	1	1.31 (0.73, 2.36)	0.83 (0.32, 2.15)	1	0.77 (0.42, 1.43)	0.58 (0.26, 1.28)
35-49세				1	0.98 (0.59, 1.62)	1.01 (0.44, 2.29)	1	0.57 (0.34, 0.96)	0.80 (0.41, 1.55)
학력(기준: 저학력과 중간 수준의 학력)									
고학력	1	1.08 (0.62, 1.87)	0.73 (0.35, 1.56)	1	0.72 (0.40, 1.32)	0.43 (0.18, 1.02)	1	0.84 (0.46, 1.52)	0.68 (0.33, 1.37)
소득(기준: 저소득)									
중소득	1	0.82 (0.39, 1.70)	0.40 (0.16, 0.96)	1	1.15 (0.54, 2.46)	0.55 (0.20, 1.53)	1	0.77 (0.34, 1.76)	0.43 (0.18, 1.02)
고소득				1	1.50 (0.70, 3.19)	0.56 (0.21, 1.50)	1	0.75 (0.34, 1.66)	0.32 (0.14, 0.75)
트랜스젠더 지인이 있다(기준: 트랜스젠더 지인이 없다)									
트랜스젠더 지인이 있다	1	1.14 (0.57, 2.28)	1.33 (0.47, 3.78)	1	0.75 (0.38, 1.46)	0.87 (0.22, 3.44)	1	1.74 (0.86, 3.53)	0.74 (0.22, 2.55)
모름	1	1.00 (0.41, 2.46)	4.23 (1.55, 11.52)	1	0.24 (0.09, 0.65)	3.50 (1.43, 8.54)	1	0.70 (0.28, 1.73)	2.45 (0.96, 6.29)

참고: 자유도(df); 신뢰구간(CI); 굵은 글씨의 셀은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 모형 적합성이 안좋기 때문에, 이 항목에 대한 분석은 수정된 변수들로 수행되었다. 즉, 연속 변수로서 연령이 포함되었고 소득 범주는 모형에 이원 변수로서 통합되어 모형에 포함되었다.

표 B. 트랜스젠더들의 정체성에 대한 태도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트랜스젠더(n=492)에 대한 친숙도에 맞춰 조정된 다중 로지스틱 회귀 모형의 가중 상대 위험도와 95% 신뢰구간

	이들은 일종의 정신질환을 가진 것이다.			이들은 일종의 신체적 장애를 가진 것이다.			이들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모름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모름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모름
	RRR (95% CI)	RRR (95% CI)	RRR (95% CI)	RRR (95% CI)	RRR (95% CI)	RRR (95% CI)	RRR (95% CI)	RRR (95% CI)	RRR (95% CI)
F-통계량(df) (p-값)	F(16, 19731)=3.95 (p<0.00)			F(16, 19731)=4.13 (p<0.00)			F(16, 19731)=3.11 (p<0.00)		
절편	1	0.35 (0.13, 0.98)	0.44 (0.15, 1.29)	1	1.08 (0.38, 3.09)	0.48 (0.16, 1.44)	1	0.18 (0.05, 0.64)	0.39 (0.13, 1.20)
성별(기준: 여성)									
남성	1	2.22 (1.36, 3.60)	1.08 (0.58, 2.02)	1	1.19 (0.75, 1.90)	1.07 (0.56, 2.05)	1	1.68 (0.86, 3.27)	1.13 (0.59, 2.17)
연령(기준: 50-64세)									
16-34세	1	0.34 (0.18, 0.67)	0.96 (0.41, 2.24)	1	0.21 (0.11, 0.40)	0.71 (0.29, 1.72)	1	0.54 (0.23, 1.25)	0.72 (0.29, 1.80)
35-49세	1	0.76 (0.44, 1.29)	1.23 (0.58, 2.60)	1	0.60 (0.36, 0.99)	1.24 (0.58, 2.64)	1	0.78 (0.40, 1.49)	1.08 (0.52, 2.25)
학력(기준: 저학력과 중간 수준의 학력)									
고학력	1	2.08 (1.08, 3.99)	0.85 (0.42, 1.71)	1	1.95 (1.07, 3.54)	0.78 (0.38, 1.63)	1	2.35 (0.93, 5.93)	0.76 (0.37, 1.57)
소득(기준: 저소득)									
중소득	1	0.63 (0.27, 1.50)	0.47 (0.20, 1.11)	1	0.55 (0.22, 1.35)	0.48 (0.20, 1.19)	1	0.40 (0.15, 1.06)	0.33 (0.13, 0.82)
고소득	1	0.52 (0.23, 1.18)	0.35 (0.15, 0.82)	1	0.64 (0.28, 1.50)	0.48 (0.20, 1.16)	1	0.37 (0.15, 0.92)	0.33 (0.14, 0.82)
트랜스젠더 지인이 있다(기준: 트랜스젠더 지인이 없다)									
트랜스젠더 지인이 있다	1	2.14 (1.09, 4.21)	0.63 (0.16, 2.56)	1	0.84 (0.44, 1.60)	0.55 (0.14, 2.19)	1	3.00 (1.28, 7.03)	1.56 (0.52, 4.68)
모름	1	0.86 (0.26, 2.83)	4.16 (1.70, 10.18)	1	0.96 (0.33, 2.81)	4.90 (1.88, 12.78)	1	1.49 (0.42, 5.27)	7.11 (2.88, 17.55)

참고: 자유도(df); 신뢰구간(CI); 굵은 글씨의 셀은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표 B(계속). 트랜스젠더들의 정체성에 대한 태도: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트랜스젠더(n=492)에 대한 친숙도에 맞춰 조정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 모형의 가중 상대 위험도와 95% 신뢰구간

	이들은 자연적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독특한 영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태어난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처럼 옷을 입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용감하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모름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모름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모름
	RRR (95% CI)	RRR (95% CI)	RRR (95% CI)	RRR (95% CI)	RRR (95% CI)	RRR (95% CI)	RRR (95% CI)	RRR (95% CI)	RRR (95% CI)
F-통계량(df) (p-값)	F(16, 19731)=2.05 (p<0.00)			F(12, 19735)=1.89 (p<0.05)			F(16, 19731)=3.45 (p<0.00)		
절편	1	1.83 (0.71, 4.69)	0.95 (0.33, 2.72)	1	0.27 (0.04, 1.76)	0.75 (0.24, 2.39)	1	0.90 (0.38, 2.16)	0.85 (0.31, 2.34)
성별(기준: 여성)									
남성	1	0.68 (0.44, 1.04)	0.95 (0.51, 1.78)	1	1.87 (0.81, 4.29)	1.11 (0.64, 1.92)	1	0.69 (0.45, 1.07)	1.05 (0.54, 2.03)
연령(기준: 50-64세)									
16-34세	1	1.03 (0.57, 1.87)	1.19 (0.52, 2.73)	1	0.99 (0.96, 1.03)	1.00 (0.97, 1.02)	1	4.37 (2.37, 8.04)	1.59 (0.67, 3.78)
35-49세	1	0.71 (0.43, 1.18)	1.10 (0.54, 2.26)				1	1.97 (1.17, 3.30)	1.23 (0.62, 2.47)
학력(기준: 저학력과 중간 수준의 학력)									
고학력	1	0.99 (0.55, 1.77)	0.77 (0.36, 1.64)	1	0.96 (0.37, 2.48)	0.70 (0.37, 1.31)	1	0.66 (0.35, 1.21)	0.51 (0.24, 1.09)
소득(기준: 저소득)									
중소득	1	0.83 (0.37, 1.89)	0.46 (0.18, 1.13)	1	0.36 (0.13, 0.99)	0.42 (0.20, 0.88)	1	0.74 (0.34, 1.60)	0.43 (0.17, 1.07)
고소득	1	1.24 (0.55, 2.81)	0.42 (0.17, 1.02)				1	1.23 (0.57, 2.65)	0.37 (0.15, 0.95)
트랜스젠더 지인이 있다(기준: 트랜스젠더 지인이 없다)									
트랜스젠더 지인이 있다	1	0.68 (0.34, 1.37)	0.51 (0.16, 1.66)	1	1.23 (0.43, 3.51)	0.64 (0.24, 1.70)	1	1.23 (0.60, 2.50)	0.95 (0.30, 3.01)
모름	1	0.92 (0.36, 2.31)	3.57 (1.39, 9.16)	1	1.34 (0.32, 5.59)	2.88 (1.23, 6.75)	1	0.50 (0.18, 1.36)	3.14 (1.28, 7.67)

참고: 자유도(df); 신뢰구간(CI); 굵은 글씨의 셀은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모형 적합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항목에 대한 분석은 수정된 변수들로 수행되었다. 즉, 연속 변수로서 연령이 포함되었고 소득 범주는 모형에 이원 변수로서 통합되어 모형에 포함되었다.

표 C. 사회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태도: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트랜스젠더(n=492)에 대한 친숙도에 맞춰 조정된 다중 로지스틱 회귀 모형의 가중 상대 위험도와 95% 신뢰구간

	한국 사회는 태어난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처럼 옷을 입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용인하는데 있어 너무 멀리 나갔다.†			한국 태어난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처럼 옷을 입고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 더욱 더 관대해지고 있다.			자녀가 자신이 태어난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처럼 옷을 입고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이 걱정된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모름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모름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모름
	RRR (95% CI)	RRR (95% CI)	RRR (95% CI)	RRR (95% CI)	RRR (95% CI)	RRR (95% CI)	RRR (95% CI)	RRR (95% CI)	RRR (95% CI)
F-통계량(df) (p-값)	F(12, 19735)=1.75 (p<0.05)			F(16, 19731)=2.81 (p<0.00)			F(16, 19731)=3.24 (p<0.00)		
절편	1	0.45 (0.13, 1.57)	0.94 (0.32, 2.80)	1	1.14 (0.46, 2.85)	0.43 (0.15, 1.22)	1	0.45 (0.19, 1.08)	0.53 (0.20, 1.40)
성별(기준: 여성)									
남성	1	1.08 (0.67, 1.75)	0.84 (0.51, 1.41)	1	0.79 (0.52, 1.21)	1.33 (0.65, 2.70)	1	1.06 (0.69, 1.64)	1.18 (0.64, 2.19)
연령(기준: 50-64세)									
16-34세	1	1.00 (0.97, 1.02)	0.99 (0.97, 1.02)	1	0.77 (0.43, 1.35)	1.40 (0.56, 3.50)	1	0.69 (0.38, 1.24)	1.08 (0.49, 2.37)
35-49세				1	0.69 (0.42, 1.13)	1.69 (0.81, 3.56)	1	0.79 (0.47, 1.30)	0.94 (0.47, 1.89)
학력(기준: 저학력과 중간 수준의 학력)									
고학력	1	1.27 (0.66, 2.46)	0.80 (0.44, 1.45)	1	0.78 (0.44, 1.38)	0.47 (0.21, 1.04)	1	1.55 (0.87, 2.75)	1.10 (0.55, 2.22)
소득(기준: 저소득)									
중소득	1	0.89 (0.37, 2.13)	0.59 (0.28, 1.24)	1	1.57 (0.70, 3.52)	0.80 (0.33, 1.93)	1	1.68 (0.76, 3.70)	0.57 (0.25, 1.28)
고소득				1	1.93 (0.88, 4.24)	0.42 (0.17, 1.06)	1	2.30 (1.06, 4.99)	0.45 (0.20, 1.01)
트랜스젠더 지인이 있다(기준: 트랜스젠더 지인이 없다)									
트랜스젠더 지인이 있다	1	1.04 (0.46, 2.35)	1.24 (0.55, 2.81)	1	0.77 (0.39, 1.52)	0.59 (0.17, 2.01)	1	0.36 (0.17, 0.76)	0.43 (0.14, 1.29)
모름	1	0.76 (0.23, 2.49)	3.98 (1.74, 9.13)	1	0.31 (0.10, 0.93)	3.03 (1.14, 8.06)	1	1.05 (0.39, 2.81)	4.41 (1.71, 11.33)

참고: 자유도(df); 신뢰구간(CI); 굵은 글씨의 셀은 구간<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 모형 적합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항목에 대한 분석은 수정된 변수들로 수행되었다. 즉, 연속 변수로서 연령이 포함되었고 소득 범주는 모형에 이원 변수로서 통합되어 모형에 포함되었다.

표 C(계속). 사회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태도: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트랜스젠더(n=492)에 대한 친숙도에 맞춰 조정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 모형의 가중 상대 위험도와 95% 신뢰구간

	이들은 우리 문화 전통을 거스르고 있다.			이들은 사회에서 특수한 위치에 있다.			나는 한국이 자신이 태어난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처럼 옷을 입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더 지원하고 보호하기를 바란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모름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모름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모름
	RRR (95% CI)	RRR (95% CI)	RRR (95% CI)	RRR (95% CI)	RRR (95% CI)	RRR (95% CI)	RRR (95% CI)	RRR (95% CI)	RRR (95% CI)
F-통계량(df) (p-값)	F(16, 19731)=3.34 (p<0.00)			F(16, 19731)=1.71 (p<0.05)			F(16, 19731)=2.58 (p<0.00)		
절편	1	0.64 (0.26, 1.54)	0.41 (0.14, 1.19)	1	0.55 (0.23, 1.34)	0.46 (0.16, 1.30)	1	1.12 (0.44, 2.82)	0.82 (0.28, 2.37)
성별(기준: 여성)									
남성	1	1.91 (1.20, 3.05)	1.35 (0.73, 2.51)	1	1.36 (0.88, 2.12)	1.39 (0.71, 2.73)	1	0.92 (0.60, 1.41)	1.16 (0.62, 2.18)
연령(기준: 50-64세)									
16-34세	1	0.45 (0.24, 0.84)	0.82 (0.34, 1.99)	1	0.95 (0.53, 1.72)	0.81 (0.33, 2.01)	1	1.38 (0.78, 2.46)	1.12 (0.50, 2.50)
35-49세	1	0.62 (0.38, 1.04)	1.32 (0.61, 2.87)	1	0.76 (0.46, 1.26)	0.93 (0.45, 1.91)	1	1.26 (0.77, 2.08)	1.43 (0.73, 2.81)
학력(기준: 저학력과 중간 수준의 학력)									
고학력	1	1.58 (0.85, 2.92)	0.94 (0.45, 1.97)	1	0.96 (0.53, 1.75)	0.82 (0.38, 1.75)	1	0.53 (0.29, 0.96)	0.40 (0.20, 0.83)
소득(기준: 저소득)									
중소득	1	0.69 (0.31, 1.50)	0.43 (0.19, 1.00)	1	0.77 (0.35, 1.71)	0.33 (0.13, 0.83)	1	0.95 (0.42, 2.13)	0.59 (0.24, 1.45)
고소득	1	0.71 (0.34, 1.51)	0.29 (0.12, 0.71)	1	1.55 (0.71, 3.41)	0.54 (0.23, 1.30)	1	1.71 (0.77, 3.79)	0.56 (0.23, 1.32)
트랜스젠더 지인이 있다(기준: 트랜스젠더 지인이 없다)									
트랜스젠더 지인이 있다	1	0.82 (0.39, 1.74)	1.16 (0.43, 3.13)	1	0.97 (0.50, 1.90)	0.76 (0.22, 2.65)	1	1.11 (0.57, 2.19)	0.60 (0.18, 2.02)
모름	1	1.08 (0.38, 3.02)	5.58 (2.17, 14.35)	1	1.09 (0.38, 3.08)	3.28 (1.33, 8.05)	1	1.09 (0.42, 2.79)	4.87 (1.96, 12.11)

참고: 자유도(df); 신뢰구간(CI); 굵은 글씨의 셀은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부록 II

단일 국가 요약보고를 위한 IPSOS 방법론 부록

2016년에 국제 설문조사 기관인 Ipsos에서 최초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세계인의 태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고,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영국, 헝가리, 인도³⁶,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페루, 폴란드,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스페인, 스웨덴, 터키 및 미국이 포함되었다. Williams Institute, Ipsos 및 BuzzFeed News가 트랜스젠더에 대한 여론과 관련된 공공 정책 문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Ipsos는 그것을 월간 온라인 Global Advisor 설문조사 안에 별개의 섹션으로 포함시켰다. Ipsos는 직접 조직하고 관리하는 패널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6년 설문조사 결과를 볼 수 있는 사이트: [Public Support for Transgender Rights: A Twenty-three Country Survey\(트랜스젠더 권리에 대한 대중의 지지: 23개 국가 대상 설문조사\)](#).

Ipsos는 47개 국가에서 47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잠재적 설문조사 참가자 패널을 관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모집 및 보유를 하고 있다. Ipsos는 잠재적인 다양한 구성의 설문조사 참가자 패널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소스를 통해 모집하고 있고, 표본추출의 목표를 국민 인구조사, 설문조사 연구 수요가 큰 집단, 그리고 자연 감원과 응답률 등의 패널 매개변수에 기초를 둔 모집으로 정하고 있다. Ipsos는 대다수의 패널을 광고, 웹사이트 위탁, 직접적인 이메일 연락 및 기타의 방법을 통해 온라인으로 모집하고 있다. 패널리스트 역할을 하기로 동의하는 사람들에게는 패널 참가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며, Ipsos는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패널에서 제외한다.³⁷ '트랜스젠더에 대한 세계인의 태도'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Ipsos는 라우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및 국내 거주 지역에 대한 할당량을 설정한 국가별 인구 조사에서 나온 층화된 표본 내의 패널리스트에서 잠재적 설문조사 참가자를 무작위로 선택했다. 가중치를 생성하기 위해 적절한 특성이 선택되는 경우, 표본추출 할당과 사후층화 가중치에 의해 온라인 참가 패널을 일반 대중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38, 39, 40} 본 연구에서는 Ipsos에서 개발된 표본추출 방식과 가중치 방식을 사용했다.

2017년에 Ipsos는 위에서 설명한 표본추출 방식으로 27개 국가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세계인의 태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Ipsos는 2017년 10월 24일부터 11월 7일 사이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참가자 패널 출신 국가에는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에콰도르, 프랑스, 독일, 영국, 헝가리, 인도,⁴¹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폴란드, 러시아, 세르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스페인, 스웨덴, 터키 및 미국이 포함되었다. Ipsos는 칠레, 에콰도르, 말레이시아 및 세르비아의 패널을 대상으로는 처음으로 2017년 설문조사를 실시한 반면 나머지 23개 국가에 대해서는 2016년과 2017년 모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개인이 설문조사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16세에서 64세 사이의 연령이어야 하고(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는 예외로 18세에서 64세 사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설문조사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야 했다. 2017년 설문조사에는 2016년 설문조사 문항 대부분과⁴² 추가 항목도 포함되었다. 설문조사는 각국에서 해당 국가의 공용어나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 자체적으로 실시되었다. Ipsos와 협력하는 국내 전문가팀이 각 국가를 위한 설문지 원문의 번역과 수정을 맡았다. 설문조사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었고 Ipsos는 참가자의 개인식별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⁴³

인터넷 보급률이 60% 이상인 국가에서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세계인의 태도' 설문조사 자료가 해당 국가의 성인 인구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적절한 가중치 변수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⁴⁴

⁴⁵ 2017년에 다음의 16개 국가가 인터넷 접근도와 인터넷 보급률이 더 좋아졌다 -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폴란드, 세르비아, 한국, 스페인, 스웨덴, 미국. 다른 11개 국가, 즉, 브라질, 칠레, 중국, 에콰도르, 인도,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터키는 인터넷 보급률이 낮아 이들 국가에서 얻은 조사결과는 국민을 대표하지는 못하고, 대신에 좀 더 부유하고 인터넷 연결이 되는 집단을 대표한다. 뿐만 아니라, Ipsos는 인터넷 보급의 제약 때문에 중국이나 멕시코의 중등교육 미만 학력자 또는 브라질의 초등교육 미만 학력자로부터는 자료를 수집하지 않았다.

2017년 설문조사 표본에는 27개 국가에서 19,747명의 성인이 포함되었다. 아르헨티나, 벨기에, 칠레, 에콰도르, 헝가리, 인도,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폴란드, 러시아, 세르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스웨덴 및 터키에서 각각 약 500명의 패널이 설문조사를 완료하였고,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및 미국에서 각각 약 1,000명의 패널이 설문조사를 완료하였다.⁴⁶

아래에 2017년 '트랜스젠더에 대한 세계인의 태도' 설문조사 문항들을 옮겨놓았다.

-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처럼 옷을 입고 생활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실제로 자신을 여성으로 생각하여 여성처럼 옷을 입고 생활합니다. 또는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을 남성으로 생각하여 남성처럼 옷을 입고 생활합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얼마나 친숙하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답변을 모두 선택하십시오.

- 이런 사람은 거의 만나보지 못했거나 전혀 보지 못했다.
-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한다.
-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 이와 같은 친구/가족이 있다.
- 내가 여기에 해당한다.⁴⁷
- 모름

- 태어난 성별과 다른 성별처럼 옷을 입고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다음의 각 진술에 대하여 동의 또는 동의하지 않음을 표시해주십시오.

- 이들에게 수술을 허용하여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신체를 갖도록 해야 한다.
- 자신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성별의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 자신의 출생 성별과 같은 성별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허가해야 한다.
- 임신이나 출산을 허용해야 한다 (생물학적으로 가능하다면)
- 자녀를 입양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 이들은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정부에 의해
- 이들의 군 복무를 허용해야 한다

- 매우 동의함
- 약간 동의함
- 별로 동의하지 않음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모름

- 태어난 성별과 다른 성별처럼 옷을 입고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다음의 각 진술에 대하여 동의 또는 동의하지 않음을 표시해주십시오.

이들은 일종의 정신질환을 가진 것이다.

이들은 일종의 신체적 장애를 가진 것이다.
 이들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 문화 전통을 거스르고 있다.
 이들은 자연적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사회에서 특수한 위치에 있다.
 이들은 독특한 영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

- 매우 동의함
- 약간 동의함
- 별로 동의하지 않음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모름

4. 태어난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처럼 옷을 입고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다음의 각 진술에 대하여 동의 또는 동의하지 않음을 표시해주시시오.

[국가] 사회는 태어난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처럼 옷을 입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용인하는데 있어너무 멀리 나갔다.

[국가]은(는) 태어난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처럼 옷을 입고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 더욱 더 관대해지고 있다.

자녀가 자신이 태어난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처럼 옷을 입고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이 걱정된다

자신이 태어난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처럼 옷을 입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용감하다

나는 [국가]이(가) 자신이 태어난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처럼 옷을 입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더 지원하고 보호하기를 바란다

- 매우 동의함
- 약간 동의함
- 별로 동의하지 않음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모름

참고: 설문조사에서는 트랜스젠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비 영어권 환경에서 트랜스젠더라는 용어가 점점 흔하게 사용되지만, 그 용어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지는 알 수 없다. 여러 국가들에서 더 이해가 잘될 것 같은 질문들을 개발하기 위해 Ipsos는 설문조사 참가자들에게 현재의 성별 정체성이 그들의 출생 시 성별과 다른 사람들에 관해 질문을 했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참가자들에게 행동 위험 요인 감시 시스템(BRFSS)의 선택적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SOGI) 모듈⁴⁸ 에서 제공되는 트랜스젠더 신원에 대한 정의와 비슷한 정의를 제시하였다. BRFSS에서의 정의: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다른 성별 정체성을 경험하며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남자의 신체로 태어났지만 스스로를 여자라고 생각하거나 여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한다.”

각주

- ¹ 한국행정연구원. (2017). 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보고서, 한국,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안상수, 김이선, 마경희, 문희영, 이명진. (2015).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한국, 서울: 여성가족부.
- ² Flores, A. R. (2015). Attitudes toward transgender rights: Perceived knowledge and secondary interpersonal contact. *Politics, Groups, and Identities*, 3(3): 398-416.
- ³ 이호림, 이혜민, 윤정원, 박주영, 김승섭. (2015). 한국 트랜스젠더 의료접근성에 대한 시론. *보건사회연구*, 35(4): 64-94.
- ⁴ Ibid.
- ⁵ 국가인권위원회. (2008). 차별판단지침, 한국, 서울: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 ⁶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2019년 3월 20일의 결정, 17-진정-0726700.
- ⁷ 김지림, 김현경, 류민희, 박한희, 송지은, 이승현, 장서연, 조혜인, 한가람. (2018).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7. 한국, 서울: SOGILAW. 검색 출처: http://annual.sogilaw.org/review/?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2041&sid=e942dc24b2048ec6e0c19ac51f3e0df5.
- ⁸ Ibid.
- ⁹ 이호림 등. (2015).
- ¹⁰ 김지림 등. (2018)
- ¹¹ Ibid.
- ¹² Ibid.
- ¹³ Yi, H., & Gitzen, T. (2018). Sex/gender insecurities: Trans bodies and the South Korean military. *TSQ: Transgender Studies Quarterly*, 5(3), 378-393.
- ¹⁴ Ibid.
- ¹⁵ Ibid.
- ¹⁶ 김지림 등. (2018)
- ¹⁷ Yi & Gitzen (2018)
- ¹⁸ 이 보고서 전반에서 사용되는 “트랜스젠더”라는 용어는 “출생 시 타고난 성과 다른 성으로 옷차림을 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대규모 Ipsos 설문조사 프로젝트에서는 조사 대상인 27개 국가 내 성소수자들의 정체성에 대한 다양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용어를 의도적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하였다.
- ¹⁹ Clark, J. & Jackson, C. (2018, January). Global Attitudes Toward Transgender People. Ipsos. 검색 출처: <https://www.ipsos.com/en-us/news-polls/global-attitudes-toward-transgender-people>
- ²⁰ 참가자의 응답 중 “모름”을 선택한 사람들이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인지, 트랜스젠더인 사람을 알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인지, 또는 다른 의미인지, 응답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 ²¹ 본인이 트랜스젠더가 아닌 참가자들 중에, 트랜스젠더 지인, 친구 또는 가족이 있다고 말한 응답자들은 “트랜스젠더인 사람을 알고 있다”로 표시되었고, 트랜스젠더들을 거의 또는 전혀 접하지 않았거나 본 적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고 트랜스젠더인 지인, 친구 또는 가족이 있다고 명시하지 않은 응답자들은 “트랜스젠더인 사람을 알지 못함”이라고 표시되었으며, 트랜스젠더에 대한 친숙도 질문에 “모르겠다”고 명시한 응답자들은 “모름”으로 표시되었다.
- ²²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가계 소득, 트랜스젠더에 대한 친숙도가 태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탐구하기 위해 각 항목에 대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준비하여 모형의 다른 모든 변수들에 맞게 조정하였다. 상대 위험도(RRR)가 1.0 이상인 것은 특정 응답이 (“동의하지 않음”에 비해) 문제의 변수(가령, 성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RRR이 1.0 미만인 것은 특정 응답과의 관련성이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 ²³ 연구가들이 사회적 수용도의 변화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소수 집단(가령, 소수 종교인, 성적 소수자, 소수 인종이나 소수 민족)에 대한 태도 조사를 조사하는 것이 오랫동안 사회적 태도를 조사하는 여론조사와 설문조사의 주제였다. 예로서, 인종 불평등에 관한 2018 종합사회조사의 결과를 참조한다 - <http://www.apnorc.org/projects/Pages/Changing-Attitudes-about-Racial-Inequality.aspx>
- ²⁴ 통계청(2015).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 - 7차 개정(KCD7) 이용 사이트: <http://www.koicd.kr/2016/main.do>
- ²⁵ Tadlock, B. L., Flores, A. R., Haider-Markel, D. P., Lewis, D. C., Miller, P. R., & Taylor, J. K. (2017). Testing Contact Theory and Attitudes on Transgender Rights. *Public Opinion Quarterly*, 81(4): 956-972. & King, M. E., Winter, S., & Webster, B. (2009). Contact

Reduces Transprejudice: A Study on Attitudes towards Transgenderism and Transgender Civil Rights in Hong Kong. *International Journal of Sexual Health*, 21(1): 17-34.

²⁶ Tadlock, B. L., Flores, A. R., Haider-Markel, D. P., Lewis, D. C., Miller, P. R., & Taylor, J. K. (2017). Testing Contact Theory and Attitudes on Transgender Rights. *Public Opinion Quarterly*, 81(4): 956-972.

²⁷ Flores, A. R., Brown, T. N. T., Park, A. S. (2016). Public Support for Transgender Rights: A Twenty-three Country Survey. CA, USA, The Williams Institute.

²⁸ Lee, H., Park, J., Choi, B., Yi, H., & Kim, S. S. (2018). Experiences of and barriers to transition-related healthcare among Korean transgender adults: focus on gender identity disorder diagnosis, hormone therapy, and sex reassignment surgery. *Epidemiology and health*, 40:e2018005.

²⁹ 나미수, 전오열. (2006). TV시사다큐멘터리의 서사 비교연구: "트랜스젠더" 주제 <추적60분> <그것이 알고싶다>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6(4): 89-132.

³⁰ Tadlock, B. L., Flores, A. R., Haider-Markel, D. P., Lewis, D. C., Miller, P. R., & Taylor, J. K. (2017). Testing Contact Theory and Attitudes on Transgender Rights. *Public Opinion Quarterly*, 81(4): 956-972.

³¹ 김상학. (2004).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7: 169-206.

³² 한국 갤럽. (2019). 356차 한국 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이용 사이트: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Download.asp?seqNo=1017>

³³ Heeringa, S. G., West, B. T., & Berglund, P. A. (2017). *Applied survey data analysis*, 2nd ed. New York, NY: Chapman and Hall/CRC.

³⁴ 이 추정치는 전염병학과 같은 분야에서 사용되는 "상대 위험도"라는 용어 사용과는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의 거듭제곱의 추정 계수에 대한 해석은 이원 로지스틱 회귀에서의 승산비를 연장한 것이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서는 비교를 위한 기준 범주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승산비는 그 기준과 비교하여 해석되는데, 이 때문에 상대 위험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StataCorp. (2017). *mlogit – multinomial (polytomous) logistic regression*. Stata 15 Base Reference Manual. College Station, TX: Stata Press도 참고.

³⁵ <https://stats.idre.ucla.edu/stata/output/multinomial-logistic-regression-2/>

³⁶ Ipsos의 이전 연구조사에서는 인도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패널 표본집단이 일반 대중을 대표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도의 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나온 자료가 이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로 나왔다. 따라서 Ipsos는 610 명의 성인 표본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인도의 원래의 온라인 설문조사 패널에서 나온 자료를 공개 자료에서 제외했다. 인도에서 직접 대면 조사에서 나온 자료가 'Public Support for Transgender Rights: A Twenty-three Country Survey(트랜스젠더 권리에 대한 대중의 지지: 23개 국가 대상 설문조사)'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세계인의 태도' 설문조사에서 나온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Ipsos의 모든 간행물에 제시되어 있고, 인도의 원래의 온라인 설문조사 패널에서 나온 자료는 발표되지 않았다. 직접 대면 조사로 실시된 설문조사에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세계인의 태도' 설문조사와 동일한 질문이 포함되었고 인도의 법적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추가적인 질문도 포함되었다. 인도의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5개 지역에서 우편 주소의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해 선정되었다. 참가 또는 설문조사 작성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Ipsos가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식별정보를 제거하였다.

³⁷ 응답자는 설문지 작성에 따라 포인트를 받는다. 받는 포인트 수는 설문조사 작성 시간과 복잡한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설문조사를 완료하지 않은 참가자에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패널의 설문조사 참가를 추적하여(무활동, 속도 및 기타 변수) 품질 문제를 찾아낸다. 참가자들이 지속적으로 패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설문조사 참여가 요구된다. 그러나 패널들에게는 무활동으로 확인되기 전에 설문조사에 응답할 상당한 시간이 주어진다. 탈퇴했거나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패널은 정기적으로 패널에서 제외된다.

³⁸ Kennedy, C., Mercer, A., Keeter, S., Hatley, N., McGeeney, K., & Gimenez, A. (2016, May 2). Evaluating online nonprobability surveys. Washington, DC: Pew Research Center. 검색 출처: <https://www.pewresearch.org/methods/2016/05/02/evaluating-online-nonprobability-surveys/>

³⁹ Mercer, A., Lau, A., Kennedy, C. (2018, Jan. 26). For weighting online opt-in samples, what matters most? Washington, DC: Pew Research Center. 검색 출처: <https://www.pewresearch.org/methods/2018/01/26/for-weighting-online-opt-in-samples-what-matters-most/>

⁴⁰ Mercer, A. et al. (2018)

⁴¹ 2017년에 인도에서 Ipsos 패널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세계인의 태도' 설문조사가 온라인으로 실시되었다. 2017

년에는 직접 대면 조사는 실시되지 않았다.

⁴² 2017년 버전에서는 트랜스젠더들을 이웃, 동료, 교사, 군인, 선출 지도자 및 가족으로 두고 싶지 않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근접성 질문들과 트랜스젠더들이 신분 증명 문서에 그들의 성별을 법적으로 어떻게 변경할지 또는 변경해서는 안 되는지에 관한 질문은 없었다. Ipsos는 성별 대명사 사용과 정치 사회 발전에 관한 새로운 질문을 추가했다.

⁴³ 인도의 자료는 예외로 했는데, 인도에서 Ipsos는 직접 대면 조사에 참가한 응답자로부터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했다. 이 대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비밀이 보장되었고, Ipsos는 자료 정리 과정에서 개인식별정보를 제거했다.

⁴⁴ 인구조사에 기초를 둔 가중치를 사용하면 이런 자료가 균형을 이루어 일반 성인 집단을 반영할 수 있지만, 어떤 방법이든 그렇듯이, 표본추출의 틀에 차분 확률 포함을 기준으로 자료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⁴⁵ Mercer et al. (2018)

⁴⁶ Ipsos 온라인 여론조사의 정확도는 1,000명의 표본집단에서는 신뢰구간 +/- 3.1 퍼센트포인트, 그리고 500명의 표본집단에서는 +/- 4.5 퍼센트포인트의 신뢰구간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Ipsos의 신뢰구간 사용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s://www.ipsos.com/en>

⁴⁷ 이 응답 항목은 표본집단에서 트랜스젠더 참가자를 찾아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⁴⁸ CDC. (2018). 2018 BRFSS Questionnaire. Atlanta, GA: CDC. 검색 출처: https://www.cdc.gov/brfss/questionnaires/pdf-ques/2018_BRFSS_English_Questionnaire.pdf